

Celanese, 특수 Alcohol 사업호조

최근 TDC Alcohol DM 수요 급증세 ... 생산능력 60% 추가 증설 계획

Celanese가 TCD Alcohol DM(Tetracyclodecane Dimethylol) 생산능력을 2002년 약 30% 증설한 데 이어 추가로 60% 더 확대할 계획이다.

Celanese는 독일 Oberhausen에서 약 20년 동안 TCD Alcohol DM이라는 특수(Specialty)화학제품을 생산해 왔다.

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TDC Alcohol DM 수요가 2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생산능력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.

현재 Celanese 외에 한 일본기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TDC Alcohol DM을 산하고 있다.

Celanese는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본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2004년 3/4까지 확대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나 증설규모 및 Celanese의 TCD Alcohol DM 전체 생산능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.

TCD Alcohol DM은 향료(Fragrance) 성분 및 Resin, 플라스틱, Lacquer, 코팅용 특수 폴리머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광학코팅 및 트수 접착제에서 활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.

한편, Celanese는 곧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당분간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사들이 선불리 TCD Alcohol DM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17>